

“봄철, 건조한 날씨 산불 조심하세요”...도, 홍보 캠페인

22개 시·군 참여 축제장·전통시장 중심 현장 점검 산불 발생 요인 사전차단 등 불법 소각 단속 강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전남도가 3월 첫째 주를 ‘산불예방 집중 홍보 주간’으로 정하고 22개 모든 시군과 함께 대대적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은 전통시장, 등산로 입구, 주요 관광지 등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와 시군(읍면동 포함)을 비롯한 경찰·소방·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 총 3672명이 참여해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주요 활동은 △등산객·관광객 대상 산불 예방 수칙 안내 △마을회관·경로당 방문을 통한 불법 소각금지 홍보와 안내문 배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불세 관리

현장 점검 △주요 산림 내 인화물질 제거 작업 등이다.

전남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봄철 인파가 집중되는 축제장과 다중이용시설인 △광양 매화축제장 △신안 홍매화 축제장 △담양 죽녹원 △원도수목원 △월출산 국립공원 △불갑산 도립공원 △여수 서시장 △순천 아랫장 △보성 향토시장 △해남·강진 전통시장 등이 주요 대상지다.

곡성과 화산에서는 산림조합과 함께 산림 내 인화물질 제거 활동을 추진하고, 장성에서 산불 취약특수보호시설인 요양

병원을 대상으로 주민대피 요령을 홍보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캠페인으로 진행한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며 “도민께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고, 산행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향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실수로 산불을 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이 2배 강화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는 최근 3월 첫째 주를 ‘산불예방 집중 홍보 주간’으로 정하고 22개 모든 시·군과 함께 대대적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제공=전남도

KCH그룹, 신안 안좌 초·중·고 장학금 후원

2040년까지 5억5000만원 장학사업 초등학교까지 확대

KCH그룹이 신안 안좌지역 초·중·고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확대하고 있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KCH그룹은 최근 신안 안좌 초·중·고등학교 2026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안좌초등학교와 장학금 후원을 협약할 예정이다.

KCH그룹은 2020년 안좌고등학교와 장학협약을 체결한 이후 2040년까지 총 5억5000만원 규모의 장학사업을 추진 중이며, 안좌면 태양광발전소 직원들이 자

발적으로 모은 ‘안좌드림뱅크’ 기금을 통해서도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KCH그룹의 장학금 지원 범위는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안좌초등학교에는 매년 2000만원 범위 내 장학금을 지원해 입학·졸업식 장학금 지급은 물론 문화체험비, 단체복 지원, 발전소 견학, 신재생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KCH그룹은 지난 3일 안좌 초·중·고등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안좌초등학교와 장학금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신안군

도 안좌중학교에는 안좌드림뱅크 기금으로 매년 600만원 범위 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KCH그룹 지원의 추후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박민화 신안군 에너지연계교육과장은 “안좌지역은 고령화와 학생 수 감소로 고

육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며 “이번 장학사업 확대는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현규 기자 leek2123@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장흥 출신 독립운동가 3명이 독립운동가로 신규 서훈됐다. 사진제공=장흥군

장흥 출신 독립운동가 3명 신규 서훈

이순흠·이상흠·문락교 선생

장흥군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3명이 독립운동가로 신규 서훈되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전남도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는 장흥 출신 이순흠 선생이 독립운동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은 자녀 이영애 씨가 대리 수훈했다.

이순흠 선생은 1934년 장흥에서 일제의 식민통치 변혁과 신사회 건설을 목회로 활동하던 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에 참여했다가 체포되는 등 항일운

동에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전남운동협의회는 일제 식민통치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며 민족 자주독립과 사회 개혁을 지향했던 단체로, 당시 전남 지역 항일운동의 한 축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서훈에는 장흥군 출신 이순흠 선생과 고 문락교 선생도 같은 공적으로 함께 신규 서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이 다시금 조명되고, 장흥의 항일 역사 또한 재평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현재 장흥에는 3·1운동 당시 전남 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해 2005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된 고 양희준 선생의 유족을 포함해 총 127구의 독립운동가 유족이 거주하고 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4일 광주 서구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2026 광주·전남 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김진수 광주·전남사진기자협회장과 내빈들이 ‘현장의 눈빛’을 주제로 한 전시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오는 10일까지 이어진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광주·전남 보도사진전 개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사진 100여점 전시

광주·전남 사진기자들이 지난 1년간 역사의 현장을 누비며 기록한 결실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회장 김진수)는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갤러리에서 ‘2026 광주·전남 보도사진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현장의 눈빛’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회원들이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의 사건·사고 현장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착한 보도사진 100여점이 전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진수 회장을 비롯해

지역 주요 인사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진수 회장은 “이번 사진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찰나의 순간들을 모은 것”이라며 “시민들이 사진 속에 담긴 현장의 뜨거움 눈빛과 목소리를 직접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도사진전은 오는 10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에서 이어지며, 16일부터 27일까지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2차 전시가 진행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소년원서 체험 중심 과학교육 진행 ‘주목’

국립광주과학관, ‘찾아가는 희망과학관’ 프로 처음 운영

국립광주과학관이 과학문화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들에게 체험 중심 과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소년원을 찾아가 눈길을 끈다.

전국 소년원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과학관 프로그램으로 첫 사례로 운영돼 의미를 더한다.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후원회장 김흥근, ㈜남산산업 회장)와 함께 범무부(장관 정성호) 산하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과 협력해 ‘2026 찾아가는 희망 과학관’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소년원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가능성을 발견하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 광주소년원에서 운영된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과 인솔교사를 포함해 총 145



명이 참여했다.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됐다.

행사는 로보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이동형 과학전시물 해설과 체험, 천체망원경의 원리를 배우고 태양의 흑점을 직접 관측하는 천문교육, 그리고 3D 펜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열쇠고리(키링)를 제작하는 창의 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교육실 문기현 연구원은 “앞으로도 과학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과학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재정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농어촌공사 나주시사, 건설현장 안전결의대회

중대재해 예방·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는 최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역사 확대와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2026년 건설현장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공사감독 및 현장대리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건설현장의 참여 주체 간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이행각서 교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결의대회 개최를 위한 결의문 낭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산업재해 사례 공유 및 당부사항 전파 등이 진행됐다.

또 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청해 재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는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역사 확대와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2026년 건설현장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농어촌공사 나주시사

해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청취하고, 건설현장 참여 주체 간 체계적인 안전관리·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시행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나주=조원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NH농협 보성지부, 지역사회 발전·군민 복지 응원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4480만원 전달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가 제휴카드 적립기금 4480만원을 보성군에 전달했다. 왼쪽에서 세 번째 김철우 보성군수, 왼쪽 네 번째 송해경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장.

전달식에는 김철우 군수와 송해경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장 등 관계자가 함께 했다.

이번 기금은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와 보성군 간 협약에 따라 2025년 한 해 동안 사용된 농저수도 보성사랑카드, 보조카드, 보성군청 복지카드 이용 금액의 0.1%에서 1.0%를 포인트로 적립해 조

성됐다.

전달된 적립기금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송해경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장은 “이번 기금 전달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금융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가 제휴카드 적립기금 4480만원을 보성군에 전달했다. 왼쪽에서 세 번째 김철우 보성군수, 왼쪽 네 번째 송해경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장. 사진제공=보성군